

지 상 토 론

우리는 왜 PIC 하이브리드豚을 수입하는가 ?

1. 서론

미국이 한국의 양돈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 미국은 옥수수 곡창지대(Corn belt)에서 생산되는 저렴하고 풍부한 사료곡물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양돈기술을 개발하고 조직된 양돈산업의 침범을 한국에 급파하고 있다. 유명한 미국의 대학교수들은 양돈기술 혹은 학문의 전파라는 논리적 호감을 내세우며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의 형식으로 대한국 판촉을 진행한다. 그들은 이미 미국양돈산업의 2000년이란 전략구상을 통해 동남아시아 돈육시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 시장마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돈육생산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쌀이라는 국민적 정서에 자존심을 둔 한국을 대상으로 축산물시장을 UR협상의 덤으로 처리하였다.

생체 1kg당 돈육생산비가 말해주듯이 미국은 900원, 캐나다 960원, 덴마크 1,060원인데 비해 한국은 1,38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경쟁력을 갖는다.(정영철 박사, 현대양돈 93년 6~7월) 수입개방만 된다면 물류비용, 관세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우리의 돈육생산비보다 낮은 도착가로 수출의 기회를 노릴 상대국은 많다. 위기를 느낀다.

2. 국내의 UR 대응책

국내의 UR대응 분위기는 떠들썩하다. 연이어 UR대응전략세미나가 개최되고 축산잡지나 일간지는 그 대응방법의 모색에 땀흘린다.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 대량화, 돈사시설의 현대적 개량, 양돈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양기술의 도입 및 검토, 질병감소를 목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탐구, 양돈경

정 재 영

(한국PIC 수위위생부장)

영의 합리화, 유통구조의 개선, 돈육품질의 향상, 양돈생산체계의 재편성 등등 그동안의 안이한 양돈산업의 틀을 꺾질개는 아픔으로 새로이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외에서 느끼는 감각도 다르다. 모돈규모 60~70두 이하의 양돈장은 사업포기 혹은 확장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손익분기점의 확보 때문이다. 규모의 안정성을 가진 비육돈농장도 노동력절감과 생산성 증대의 최소접근을 시도한다. 전쟁이다. 모두 생존의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

종돈장도 마찬가지다. 향후 벌어질 종돈장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현재보다 개량된 품종의 공급과 생산비 절감으로 표현될 것이다. 즉 종돈장의 자기 논리보다는 비육돈농장의 욕구에 알맞은 번식돈 생산에 목표를 겨냥해야 한다. 종돈장으로부터 비육돈농장으로 유래되는 질병의 감염기회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종돈장의 자성돈도 대두되고 있다. 비육돈과 겸업하여 종돈장 본래의 모습을 다하지 못한 점, 외국구입선의 튼튼한 확보가 없어 일관된 번식돈생산에 불리했던 점, 속깊이 번식돈의 생산성을 검토하지 않고 외모

등에만 치중한 개량, 순종돈의 능력때문에 발생하는 상승된 생산비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한국적 종돈의 도착화라는 종돈장의 목표가 된 이슈가 생겼으나 그것도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우선 독특한 종돈의 개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고, 국내시장에 적합한 돈육생산에 초점을 맞춘 종돈라인 설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적 종돈도 외국종돈장의 종돈에서 유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종돈개념의 해석에도 문제점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종돈이란 PS를 포함한 그 윗세대를 말하는데 반하여 한국·대만 등은 순종만을 인정하고 있다. 순종이 아닌 돼지는 생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합성돈 등 아무리 우수한 형질을 갖는 번식돈라인이라도 종돈이라는 형식에서 멀다. 이런 합성돈, 하이브리드 등으로는 종돈장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적 조류는 하이브리드건 순종이건간에 형질상의 특성으로 종돈분류가 이루어지며 이런 분류를 토대로 비육돈 생산을 위한 번식돈의 발전이 활발하다.

한국 PIC가 PIC 하이브리드돈을 수입하는데에서 느낀 몇 가지 매력이 있었다. GP돈군의 선발시 도태되는 돼지는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비육돈만의 성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순종보다 생산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순종보다 뛰어난 번식능력은 더많은 번식돈의 생산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5원교잡인 비육돈은 정육률, 도체율, 살코기 성장률, 사료효율, 일당증체량이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MD돈군 개념의 고도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질병으로부터의 손실액을 절감할 수 있다.

몇가지 생산능력의 예를 살펴보자. 중국 매산돈의 경이로운 산자수는 양돈장의 소원이지만 그 비밀을 알 수 없었다. 전통적인 단순교배를 통한 산자수의 확충에서 육량, 일당증체량, 작은 체구 등의 고민만 남았다. 많은 연구의 결과 산자수를 조정하는 유전인자는 ESR (Estrogen Receptor)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유전자조작을 통해 랜드레이스, 요크셔종에 더 많은 산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평균 복당산자수는 1.4두 이상 증가될 수 있으며 PSY는 농장평균 30두에 도전한다. 우리나라 평균 PSY가 16두라면 그 현격한 차이를 실감할 것이

3. 왜 수입하는가?

다. 뿐만 아니라 돈육내에 연지를 생성하게 할 수 있는 돼지스트레스인자도 제거함으로써 돈육품질의 보장과 온순한 돼지성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도체처리중 돈육에 달라붙을 수도 있는 듀록종의 빨간 털이 소비자의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피부와 털의 색깔을 변이시킨 백색듀록의 탄생도 매우 특이하다. 사육일수도 140일령에 105kg에 도달한다. 농장시설의 회전을 높혀 시설투자의 절감도 노릴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노력은 실로 놀랍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질병으로 인한 손실액이 총양돈생산액의 30~35%에 이른다. PIC 종돈의 건강도는 질병유래 손실액을 줄일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청정한 돈육을 공급하게 한다.

급성질병인 돈콜레라, PRRS, 오제스키병, 돈단독, TGE, PED 등과 만성소모성질병인 위축성비염,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파스튜렐라성폐렴, 돈적리, 개선충증 등이 없다. 질병이 없는 돼지와 그 돼지의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총체적으로 집성하였다. 조기격리이유(Isowean), 돈군격리(Multi-site), 이유자돈/전돈군의 전면도태 등은 각 돈군간의 질병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질

병통제프로그램이다.

만일 어떤 돈군이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돈군의 위생적 안전은 보증된다. 수송과 농장출입자의 엄격한 통제방식은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제일의 선택이다. 이들 모두는 수의위생연계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여진다.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질병의 근원적 차단을 수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의 목적은 해결되어야 할 고충으로서의 질병이 아닌 경비절감 차원의 위생상태를 보유하려는 의도이다.

한국 PIC는 생산성이 조금이라도 나은 종돈이 있다면 UR의 높은 파고를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PIC 하이브리드돈 수입을 시도한다.

4. 해결해야 할 과제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많다. 왜냐하면 국내양돈환경(사료, 기후, 질병, 사양관리 등등)이 열악하여 어떻게 이 하이브리드돈이 적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둘째로 대개 일정한 육질·육미와 균일한 체중을 보이는 하이브리드 도축돈은 시판용이 아닌 육가공용으로 공급된다. 육질·육미를 개선할 부계계통의 조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

다.

셋째로 F₁이 비육돈농장에 알려진게 겨우 4~5년 밖에 되질 않았는데 하이브리드돈의 홍보, 판촉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비책으로 매우 잘 격리된 위치에 신설돈사를 완공하여 주위농장과 최소한 3km 이상 떨어지게 하였으며, 핵돈군인 순종 GGP의 자체계통 조성을 위해 450두 이상의 숫자를 확보하였다. 위생적인 수송차량 운영을 위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최신식 실험실의 개설도 구상하고 있다.

국내종돈업계가 우려하는 PIC 직배 등의 판매형식은 절대 배제한다. 한국 PIC는 PIC 그룹의 자회사가 아니다. 단지 종돈을 구매하였으며 보다 나은 기술을 공급받기 위해 소정의 기술료를 제공할 뿐이다. 받아들여진 양돈기술은 국내양돈장의 발전을위해 직·간접적으로 개발할 생각이다.

한국 PIC의 하이브리드돈 수입은 UR이라는 불투명한 미래를 극복해보자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선배계위의 적절한 충고와 높은 고견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다린다. 